



■ 택시 기본요금 18% 인상 적용 사흘째, 도로 위 반응은...

“택시 타기 부담... 웬만하면 버스 이용”

승객 “18% 올랐지만 체감 인상폭은 30%”

택시업계 “손님 줄어 수입엔 큰 변화 없어”

제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6년 만에 17.8% 인상됐지만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인상 폭은 3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부터 인상된 ‘택시운임 조정안’을 적용하

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택시요금 인상은 최근 택시 운송원가, 최저임금, 차량가격 상승 등 비용인상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인상된 요금 세부내용을 보면, 중형택시 기준 기본 운임(2km까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됐다. 주행거리당 요금은 144m에서 126m당 100원으로, 주행 시간당 요금도 기존 35초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단축됐다.

기본요금만이 아닌 주행거리·시간

당 요금도 같이 오르다 보니 장거리를 이동하려는 승객에게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택시를 이용한 승객 김모(29)씨는 “며칠 전 6800원 결제했던 거리가 오늘 8300원이나 나왔다”며 “기본요금 500원만 인상된 줄 알았는데 거리가 몇 수목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된다니 택시를 이용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승객 강모(52)씨는 “평소 4500~4600원 요금이 나와 1만원을 내고 ‘5000원만 주세요’ 하곤 했

데, 오늘은 무려 5900원이나 나와 그런 말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택시 요금이 인상됐지만 정작 택시업계는 승객이 줄어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택시 기사가 손님이 줄어 수입에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차 께잡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요금 인상으로 인한 승객 불만도 이해하지만, 택시 회사·기사들의 비용인상 요인 등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헌절에 ‘고개 숙인 태극기’

파손된 국기게양봉 수두룩... 관리부실 눈총

도내에 설치된 국기게양봉이 관리부실로 인해 태극기가 거꾸로 매달린 채 게양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7일 제주시 연동 한 인도 가로등에 설치된 국기게양봉에는 제헌절을 맞아 많은 수의 태극기가 꽂혀 있었다. 하지만 일부 국기게양봉에는 부분적으로 녹이 슬거나 파손돼 태극기가 거꾸로 매달려 있거나, 심지어 도로 위로 떨어져 있었다. >> 사진

인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박모(33)씨는 “아침에는 제대로 꽂혀 있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런지 갑자기 부러졌다”며 “다른 곳도 오래된 게양봉이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재경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길을 지나던 김모(27)씨는 “이 지역은 중국인 등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곳인데, 거꾸로 매달려 있는 태극기를 본다고 생각하니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담당자가 출장으로 인해 정확한 사실 확인은 힘들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주기적인 실태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장을 확인해보고 담당자와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현석기자

무등록 식품판매 덜미 관광객 상대 11억 쟁거

도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 식품을 판매해 11억여원을 쟁거 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모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제주지역 관리티장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제주에 2곳의 매장을 두고 관할 행정기관의 영업등록 없이 단독주택에 직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방범장비를 설치해 썸 제조에 필요한 배합기, 점동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00썸’ 9종을 제조했다. 이후 이 제품이 정식 등록된 서울 제조공장에서 가공된 것처럼 허위표시 된 라벨지를 붙여 매장에 진열·판매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을 상대로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은지기자

일하던 식당서 현금 훔쳐

서귀포경찰서는 17일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1)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15일 사이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서귀포시내 모 식당에서 총 6회에 걸쳐 현금 보관함과 업주의 가방 등에서 현금 3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윤기자



신나는 스쿠버다이빙 체험 17일 제주시 사수항에서 관광객들이 스쿠버다이빙 지도를 받으며 제주바다를 체험하고 있다. 이상국 수습기자

성매매 눈감은 건물주 4년간 135명 입건

몰수보전액 2억여원... 경찰 “성매매 적발 감소 추세”

자신의 건물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행위를 묵인했다가 경찰에 입건되는 건물주가 최근 4년간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건물주는 2015년 32명, 2016년 48명, 2017년 43명, 2018년 12명으로 4년간 135명에 달한다. 올해도 6월까지 11명의 건물주가 입건된 상황이다.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알선행위에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지난해 8월 서귀포시내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 소유자인 김모씨는 보증금 800만원·연세 800만원을 내고 자신의 건물에 들어선 업소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게도 처벌이 확대되면서 성매매 적발 건수는 2015년 125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이 불법영업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금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진행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제주에서 성매매가 줄어들고 있는 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한편 제주경찰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통해 총 21건(가각 포함)·2억 1621만원을 몰수했다. 송은범기자

제주지검,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

속보=10년 전 발생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모(50)씨에 대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의 항소 사유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인데, 제출된 미세검사와 CCTV 영상 증거를 통해 유죄가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없이 모텔 업

주에게 건네 받은 박씨의 청바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1일 1심 재판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증거로 제출된 미세검사는 대량으로 생산·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발견된 섬유가 박씨가 입었던 옷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CCTV 영상도 화질이 낮아 영상 속에 찍힌 차량이 박씨의 택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필로폰 투약·매매 4명 실형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49)씨와 강모(50), 고모(51)씨, 이모(34)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서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 3월부터 4월 24일까

지 제주 시내 모텔과 자택 등에서 총 8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로폰은 불상의 계약에 돈을 입금해 등기우편으로 수령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강씨 등 나머지 3명도 제주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매, 알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은범기자

그랜드 보청기

여름시즌 보청기 특별 할인행사!!!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다양한 행사에 참증을 흔저 전화 주십시오!

최대 60% 파격 할인

-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방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 고급 모델 1+1(원플러스 원 행사)
- 착용 보청기 A/S 및 무료청력검사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안내
- 청각장애인 보조금 상한선 131만원 안내

NAVER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시외버스터미널 동쪽 7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가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비출소국 국제보청기(국가계좌)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계2 2층)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주)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중축/리모델링/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지붕개량/옥상방수/페인트공사/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불박이장/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